

생명의 말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 1:1-3)



김택 목사
· 서울서부지방회 중경회장
· 순복음반석교회 담임

1.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곧 행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1절)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 마다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삽니다.(2절)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행복한 삶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과 형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과 형통한 삶(2, 3절), 죄를 멀리하는 삶(1절, 11:9-11),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요 16:33),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삶(롬 8:5-6), 즉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라는 찬송 구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참된 복은 죄와 더불어 사는 삶에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모든 죄의 뿌리 되는 원죄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죄와의 뿌리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원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에서부터 모든 죄가 생겨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 지라"(창 3:6)

2.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입니다.(2절)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신학적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헬라의 철학자)은 묵상을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라고 했고, 아거스틴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대화요,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의 손" 예화를 아십니까?

당신의 한쪽 손을 펴보십시오. 새끼 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약지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중지 손가락은 공부하는 것이고, 인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개의 손가락을 성경책 위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집어 보십시오. 읽을 수 있으십니까? 도저히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지 손가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지 손가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손가락을 모두 이용해 성경책을 집어 당신 가슴에 대어 보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성경이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묵상은 중요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그저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동정

루터대학교 'ISO 21001' 인증



루터대학교(총장 권득철)가 지난 9월 11일(수) 금천구에 위치한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한국 대학 최초로 교육기관 경영 시스템 인증인 'ISO 21001'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ISO 21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교육기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루터대학교가 기술사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세계최초의 교육기관이다.

박조준 목사 '목회 나눔 특강'



박조준 목사가 '목회 나눔 특강'을 실시한다. 세계지도력개발원장인 박 목사는 목회자 재교육 과정으로 지난 9월 26일 시작해 오는 11월 28일까지 다섯 차례 강의를 경기도 성남 세계지도력개발원에서 개최한다. 박 목사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설교법과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덕목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윤경로 이사장, 알렌기념상 수상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윤경로 이사장이 제2회 알렌기념상을 수상했다. 알렌기념상은 제중원신앙공동체에서 태동된 남대문교회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남대문교회는 우리나라 첫 상주 선교사인 알렌의 선교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알렌기념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1982년에 발족했다.

한남인문회상 추천



한남대학교(총장 이덕훈) 인문학술원은 제25회 한남인문회상 추천을 10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인문회상은 한남대 설립위원장과 초대 총장을 지낸 인돈(William A. Linton)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했다. 이 상은 기독교 선교·교육·사회봉사에 힘써 귀감이 되는 인물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언론회 입장을 밝힌다

최성해 총장은 교육자로, 신서(神誓)적 양심으로 말한 것인데, 이를 정치적·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패악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딸이 중앙대학교(총장 최성해)에서 총장상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앙대 총장은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최성해 총장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조국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최성해 총장이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인 것을 놓고, '극우적 사고를 가졌다'는(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김정은 대한민국의 방분을 환영 못 한다'(이태일리) '조국 후보자 인명에 반대한다'(부산일보) '중앙대 총장의 정치 성향에 불신을 표하기도 한다'(오마이뉴스) '중앙대 총장은 태극기 부대(민주당 송 모 의원) 라는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역측이 있어, 이에 대한 본회의 입장을 밝힌다.

중앙대 최성해 총장은 본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지만,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일 뿐, 본회의 운영이나 행정이나 논평과 성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본회는 2001년 한국의 주요 38개 교단과 단체가 합하여 만들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 왔으며, 교계 연합 성격의 피피코 대표체제로 운영되며, 논평 등은 대변인실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를 알아보지도 않고, 마치 이사장이 논평을 내고 본회를 움직여 활동한 것처럼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역측이며 오해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본회가 조국 후보자에 대하여 논평한 것을 가지고 '중앙대 총장이 한국교회언론회 이사장이며, 극우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팩트도 분명히 알린다'고 하였다. 그럼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은 모두 극우가 되는가?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학생들도 모두 극우인가? 한국교회 전체가 극우인가? 그럼 민주당은 극좌인가? 이에 답하고 반드시 사과하기 바란다.

본회가 최성해 총장을 이사장으로 모신 것은, 교육자이자 기독교적인 정신과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며, 이분은 자신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명한 금융회사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을 한국에 불러들여 해병대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등, 애국자이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수선재(修身齊家)의 본을 보인 분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분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태극기 부대'라는 일방적으로 '극우 사고

를 가졌다'고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이 뜻하는 바가 불리하게 되니, 이념적 대립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당사자들은 본회와 최성해 총장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육자의 신서(神誓)적 양심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몰상식과 몰지각한 언어적 폭행이 아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것은 이미 국민들의 생각에서 결정을 난 사안이다. 그런데도, 오만한 억지로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 한 양심 있는 교육자와 그가 봉사하는 기독교계 기관을 극우로 싸잡아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편향된 이념적 발상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비

난하지 않고,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나, 우리 사회의 윤리·도덕, 그리고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들에만 기독교의 복음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즉 기독교 가치관으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극단적 사고로 '극우'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 전체와 전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본회는 죄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서 있음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근거도 없이 간전한 기독교 단체에 행패를 부리는 세력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최성해 이사장은 본회를 이용하여 어떤 권력 행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이후에 가짜 뉴스로 본회의 명예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을 밝힌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제1학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모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Table with 4 columns: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Under '학과' is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Under '과정' is '3학차'. Under '수업연한' is '3학차'. Under '지원자격' are: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장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장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